

매운맛 봤지? 페퍼스, 창단 첫 3연승

2위 현대건설에 짜릿한 승리
4세트 4점차 뒤집고 3대 1
구단 최다 8승...봄배구 기대감
박정아 통산 6천 득점 '대기록'



단단해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의 1위 등극을 저지하며 창단 첫 3연승에 성공했다.

페퍼스는 1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세트스코어 3-1(25-21 13-25 25-19 26-24)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는 구단 최다승 기록을 '8'로 갈아치웠고, 창단 첫 3연승도 만들었다.

앞선 IBK기업은행전에서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던 테일러가 팀 최다인 24점(공격 성공률 44.23%)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한비는 앞선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20득점(43.59%)을 기록하며 경기 MVP에 등극했다.

또 장위(12득점·46.15%), 박정아(12득점·22.86%)도 공격에 힘을 보탤었다. 특히 박정아는 이날 여자부 역대 2호 통산 6000득점(현재 6007점)의 기록도 세우면서 경점사를 맞았다.

페퍼스는 0-3으로 불안하게 1세트를 시작했지만 엄어트형의 블로킹 성공으로 상대 흐름을 끊었다.

테일러의 자신감 있는 백어택, 박정아의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 성공으로 분위기를 잡은 페퍼스는 현대건설의 공격 범실을 더해 13-6까지 점수 차를 만들었다.

19-14, 박은서가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내면서 페퍼스가 20점 고지를 먼저 밟았다.

테일러가 현대건설 진영에 내리쬐는 공이 양호진 손을 맞고 나가면서 24-17 세트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후 현대건설이 24-21까지 따라붙었지만 왼쪽에서 이한비가 시간 차 공격을 선보이면서 세트를 마무리지었다.

1세트 리시브효율은 19%로 아쉬웠지만 페퍼스는 42.5%의 공격성공률을 보이며 승기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는 테일러가 상대 코트 안쪽에 공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맞대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질러 날으면서 선취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5-5에서 상대 위파위가 시간차 공격에 성공했고, 이한비의 공격범실과 함께 테일러가 블로킹에 가로막히면서 점수는 6-12까지 벌어졌다.

리듬을 잃은 페퍼스가 열심히 추격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3-21에서 이한비의 서브가 네트에 걸렸고 현대건설 모마·정지윤의 공격 득점에 이어 김다인의 서브 에이스까지 더해져 12점 차로 뒤진 채 2세트가

마무리 됐다.

2세트 리시브효율은 고작 4%에 그쳤지만 페퍼스가 3세트에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4-4에서 박정아의 오픈과 테일러의 백어택, 이한비의 스파이크가 성공하면서 페퍼스가 치고 나갔다.

19-16에서 상대 모마의 공격 범실로 20점에 먼저 도달한 페퍼스는 높이로 상대를 빈틈없이 막은 장위와 상대 벽을 뚫어낸 이한비의 활약으로 3세트

를 가져왔다.

기세를 탄 페퍼스는 4세트에도 뽕뽕 뽕뽕 승리를 이뤄냈다.

4세트 중후반 현대건설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페퍼스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었다.

페퍼스가 19-22에서 이한비의 폭발적인 공격과 장위의 서브에이스로 현대건설을 압박했다.

22-24, 2점 차에서 테일러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24-24 듀스를 만들었다. 이어 페퍼스가 이

한비의 서브 득점과 박정아의 블로킹으로 26-24를 만들면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페퍼스는 팀 공격 성공률은 37.66%, 리시브 효율은 18.39%로 현대건설(공격성공률 38.73%-리시브 효율 38.55%)에 뒤졌다. 하지만 페퍼스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한 테일러와 서브 득점 4개를 추가한 장위 등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팀워크로 승리를 합작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연습 실패

삼척시청에 26-29 패배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의 연습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도시공사가 12일 대구 계명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삼척시청과의 맞대결에서 26-29로 패했다.

지난 5일 부산시청공단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던 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삼척시청에 연속 득점을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줬다.

삼척시청이 초반 공세를 펼치면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1-5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다.

추격에 나선 도시공사는 전반 15분 삼척시청을 1점 차까지 따라잡는 데 성공한 뒤 1-2점 차 싸움을 이어갔다.

전반 27분에는 도시공사 김지현이 정현희에게 넘겨받은 공을 화려한 스카이스hoot으로 연결하면서 13-1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진 삼척시청 강주빈의 슈팅을 도시공사 골키퍼 이민지가 두 차례 연속으로 막아냈고, 전반 29분에는 김수민이 송혜수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하면서 14-13이 됐다.

하지만 전반 종료 30초를 남기고 연지현의 파울이 선언됐고, 이후 7m 드로우에서 삼척시청 전지연의 슈팅이 골키퍼 유정원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면서 14-14 동점으로 전반이 마무리됐다.

후반전에도 도시공사는 분위기를 잡는데 실패했다.

시작부터 삼척시청 김소연과 김보은이 번갈아 두 골씩 날리며 후반 5분 14-18이 됐다.

이후 도시공사 김지현이 상대 진영을 돌파해 득점했지만, 삼척시청 전지연의 속공 득점이 나왔고 도시공사 김지현과 송혜수의 9m 슈팅은 삼척시청 골키퍼 박새영에게 연달아 막혔다.

후반 10분 삼척시청이 강주빈의 골로 20점을 만들었다.

김지현과 서아루 등이 분전하며 삼척시청 잡기에 나섰지만, 도시공사의 실책이 반복되면서 2점 차에서 점수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리드를 가져오지 못한 도시공사는 이날 경기를 26-29로 마무리했다.

한편, 삼척시청은 이날 경기 포함 3경기 연속 무패 행진(2승 1무, 승점 5점)을 이어가며 2위 자리에 올랐다. 1승 2패를 기록한 도시공사(승점 2점)는 6위에 머물렀다. /김진아 기자 jinggi@



이정후 증명하라

MLB닷컴, 샌프란시스코 반등 위해 활약해야 할 선수 지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이정후(26·사진)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등을 위해 활약해야 하는 선수로 지목했다.

MLB닷컴은 12일 '증명해야 할 게 남은 자유계약선수(FA) 2년 차' 10명을 조명했다.

5번째로 이정후를 호명한 MLB닷컴은 "윌리 아다메스의 합류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영입한 이정후가 전면에 나서야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운을 폈다.

이정후는 2024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에 입성했다.

불박이 1번 타자로 뛰던 이정후는 5월 13일 신시내티와 홈 경기 중 제이머 칸텔라리오의 타구를 잡고자 뛰어올랐고,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결국 이정후는 어깨 수술을 받고, MLB 첫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MLB 37경기에서 타율 0.262(145타수 38안타), 2홈런, 8타점, 2도루, OPS(장타율+출루율) 0.641을 올렸다.

MLB닷컴은 "이정후는 다치기 전에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보여줬다"며 "헛스윙 비율 9.6%, 삼

진 비율 8.2%, 배트 중심으로 공을 때린 비율(Squared-up Rate) 37.1%를 찍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뛰어난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을 갖춘 이정후는 이 부문에서는 MLB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최근 MLB가 측정하기 시작한 배트 중심으로 공을 때린 비율은 이정후가 37.1%로, 37.3%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정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지표는 좋았지만, 타격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MLB닷컴은 "이정후는 홈런 2개를 포함해 장타를 6개만 쳤다. OPS도 0.641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후의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이 올해는 '타격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뉘앙스다.

절치부심한 이정후는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5시즌 준비를 이어간다.

MLB닷컴은 코디 밸런저(뉴욕 양키스), 마에다 겐타(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야마모토 요시노부(LA 다저스) 등을 이정후와 함께 '올해 팀가를 증명해야 하는 FA 2년 차'로 꼽았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세계1위 안세영 '출발 좋다'

올 첫 대회 말레이시아오픈 우승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2-0(21-17 21-7)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 운영을 직격하는 '작심 발언'으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안세영은 새해의 시작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11월 24일 끝난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에서 파리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7주 만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아울러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말레이시아오픈

/연합뉴스

우즈, 스크린골프 리그 TGL 첫 출격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 시즌 첫 대회에 출전한다. 자신이 창설을 주도한 스크린골프 리그 'TGL'을 통해서다.

TGL이 1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출전 명단에 따르면, 우즈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 소파이스센터에서 열리는 TGL 둘째 주 경기에 나선다.

그는 맥스 호마, 케빈 키스너(이상 미국)와 함께 주피터 링크스 골프클럽의 일원으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폴린 모리카와, 사히스 시갈라(이상 미국)로 구성된 로스앤젤레스 골프 클럽과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우즈는 지난 7월 디오폴을 마친 뒤 허리 통증으로 일반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달 미

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 우즈와 함께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는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우즈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필드를 누볐다. TGL도 가상 화면을 통해 경기를 치르는 만큼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다.

한국 선수 중엔 김주형이 유일하게 주피터 링크스 골프클럽의 일원으로 TGL에 출전한다. 다만 15일 경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연합뉴스